사단법인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
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

(사)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학술지 Open Access 출판 정책 전환 안내

1. 오픈 액세스 학술지 선언

안녕하십니까.

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(한국심리학회지 : 문화 및 사회문제) 편집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. 2022년 8월 1일, (사) 한국심리학회에서 '오픈 엑세스(Open Access : OA)' 를 선언하였습니다. 본 학회에서도 심리학의 '지식 대중화' 및 '국제화' 미션의 실천을 위한 '(사)한국심리학회 Open Acess Task Force Team'의 결의에 따라, **'한국심리학회지: 문화 및 사회문제' 학술지를 "오픈 액세스(Open Access, OA) 학술지"로 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.**

오픈 액세스는 학술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**"인터넷상에서 이용자 누구나 비용 지급 및 기타 어떠한 장애 없이 학술지 논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특별한 허가 없이도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."**는 원칙을 지지하는 운동입니다. 오픈 액세스 운동은 연간 전자저널 구독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도서관과 연구자의 비용 부담이 심해지자,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에 동참하여 2002년 부다페스트에서 첫 공식 선언된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.

논문 배포시스템을 Open Access로 전환함에 따라, 본 학회에서는 기존의 '구독학술지'의 유통환경에서 벗어나서 공공성을 지닌 과학생산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기대하며,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 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들도 학술논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심리학의 대중화 및 실용화에 앞서나가고자 합니다.

▶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Acesson 리포지터리(학술지 다운로드 플랫폼)
https://kpacsi.accesson.kr/
※ 해당 사이트에서 본 학회의 학술지를 자유롭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▶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투고시스템(JAMS)
https://kpacsi.jams.or.kr/co/main/jmMain.kci

사단법인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

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

본 학술지의 Open Access로의 전환을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 표로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, 투고예정이거나 학회 논문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분들께서는 참고바랍니다.

<변동 및 참고사항>

구분	기존정책	새로운 정책	변동 및 참고사항
① 배포시스템	DBPIA (누리미디어)	KISTI (Access-ON)	-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ITI)으로 이관작업 진행 중(현재 DOI 이관작업까진 완료)
① OA 유형	-	Gold OA	- 기존과 변동사항없음. 저자가 APC(심사료·게재료)를 부담하던 기존 정책과 동일
② CCL	CC-BY	CC-BY-NC	- CC-BY-NC(저작권 표시, 자유로운 이용가능, 영리목적 이용불가) 의미.
③ 메타데이터	1994년 1권 1호 ~ 최근호까지	현재는 2002년 8권 1호 ~ 최근호까지	- 8권 1호(2002년)부터 최신호 논문까지는 KISITI에서 자동으로 한국연구재단(KCI)과 논문연동을 진행하였으며, 학회 리포지터리에서 확인 가능함. - 1994년 창간호부터 7권 2호까지의 논문은 dbpia와 모학회가 협의하여 이관계획 수립 중
④ 저작권	학회 소유		- 기존과 변동사항 없음 - 학술지 발행기관(학회)이 저작권 소유(단, 저자와 이용자에게 몇 가지 권리 허락) - 기존 논문투고 시 제출서류에 있던 '저작권 이양 동의서' 유지
⑤ 셀프아카이빙	Blue 정책		- 기존과 변동사항 없음 - 투고심사가 완료되어 게재확정 후 최종 인쇄된 출판물만 공개 허용
⑥ 투고시스템	JAMS Portal		- 현재 JAMS Portal을 통해 투고처리하고 있으며, 2023년 ACOMS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변동사항 없음.

대대적인 OA 전환작업으로 일부 학술지 검색 및 열람이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의 말씀을 올리며, 우리 학회의 두 학술지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편집위원장 손영미 배상